

저는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만 아직 몸에 어떤 나쁜 증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제가 읽은 여러 책이나 제가 본 TV등에서도 담배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의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통계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암' 등으로 죽는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로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1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같은 얘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흔히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TV등에서 “담배는 몸에 나쁘다, 때문에 담배는 피지 않는 편이 좋다” 라고 말하는 의사조차도 실은 객연자였더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담배는 아직 몸에 나쁜 것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담배가 몸에 나쁘다해서 그것을 사회가 금지하는 것에도 저는 반대입니다. 담배를 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사람이 많습디만, 저는 그것을 보고 담배의 좋은 점을 강조하고 싶어집니다. 즉, 담배를 피며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담배의 일면만을 보고 그것을 금지한다면, 나쁜 것은 담배뿐만 아니라도 가득합니다. 자동차에 의한 공해라든가, 저희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석유제품들도 같은 것입니다.

단, 아이들에게는 담배의 여러가지 성질, 달리 말해서 나쁠지도 모르는 면과 좋을 지도 모르는 면을 잘 교육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라고 해서 담배를 피워선 안된 다라는 사회제재에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담배를 피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좋은 나쁜 점을 어떻게 구별해서 선택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